



# '빨리 빨리' 한국인 성격에 딱 '스피드 마케팅' 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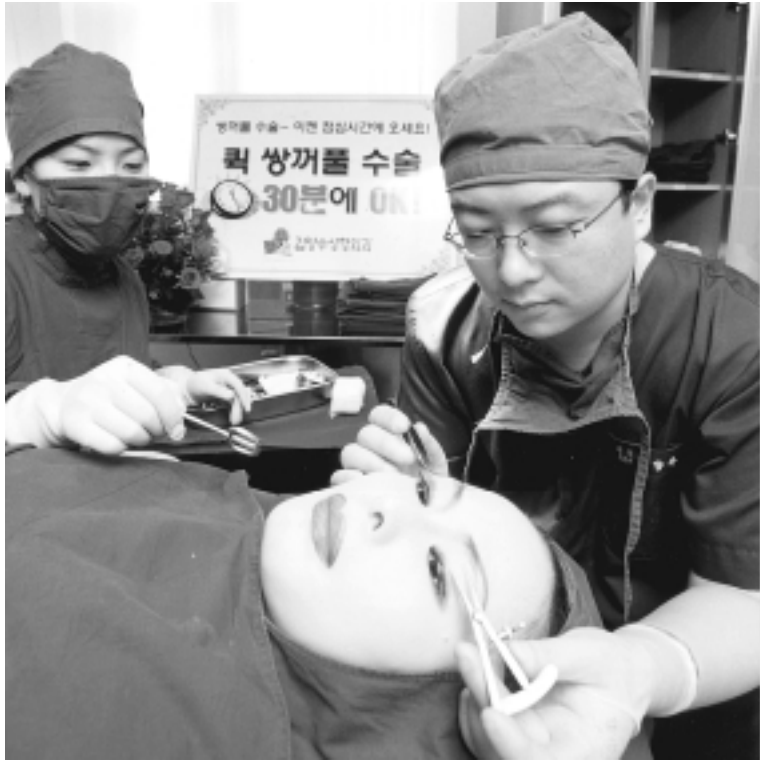
속도전쟁이 치열하다. 한국사람만큼 '빨리 빨리'를 자주 외치는 민족도 드물다. 식당에선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왜 음식이 안 나오냐고 소리를 치고, 횡단보도에에선 마치 100m 달리기라도 할 양으로 한 발을 차도에 내디딘 채 안절부절못한다.

이 같은 심리를 꿰뚫은 '스피드 서비스'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최근 각 분야에서 등장한 실제 속도 마케팅을 기사의 시나리오로 엮어 봤다. 맛벌이 부부 서영희씨(33·여). 눈을 떠 시계를 보니 8시다. '헉~ 큰일났다.'

전날 야근으로 어느 때보다 몸이 천근만근인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결국 눈잠을 자고야 말았다. 술을 마시면 꼭 아침을 챙겨먹어야 하는 남편이 하룻밤 어제 회식을 했지만...

이때 문득 어제의 '유비무환'이 떠오른 서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현관으로 향한다. 밖에는 아이스 박스에 포장된 국과 반찬이 대령해 있다.

인스턴트 요리는 싫고, 그렇다고



초를 다루는 속도전쟁이 벌어지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던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스피드시대가 열리고 있다. 30분 스피드 쌍꺼풀 수술 장면.

## 아침밥 배달-30분 쌍꺼풀 수술-번개경매 눈코 뜰새없이 바쁜 도시생활 '해결사' 역할

정신 없는 출근 시간에 국과 반찬을 마련하려면 업무가 안 나던 차에 최근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스피드 가정식'(www.ispeedfood.com)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둔 덕분에, 80% 조리된 채 새벽 6시까지 배달된 국과 반찬을 데우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여. 한 끼 1만원이 조금 넘는 돈에 근사한 가정식 요리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나니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바빠 돌아간 오전이 지나고 어느덧 점심시간. 오늘은 몇 달간 별려온 쌍꺼풀 수술을 하는 날이다. 우선 점심부터 해결해야지.

몸매를 드러내야 하는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돌입한 7일 완성 '스피드다이어트'(www.speeddiet.co.kr) 프로그램에 접속, 오늘의 할 일을 체크한 뒤 저칼로리식으로 간단히 요기를 했다. 전업주부인 친구들 가운데는 1주일간 단식원에 들어가는 이도 있지만 서씨는 직장에 매여 있어 업무가 안 나던 차에 알게 된 속성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곧바로 최근 '퀵 쌍꺼풀 수술'을 도입했다는 김양수 성형외과로 향했다. 눈가에 지방이 얇은 서씨는 '두매듭 매몰법'을 이용한 수술로 30분 만에 가볍히 수술을 마쳤다. 내리

씨는 햇살을 맞으며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낀 채 다시 회사로 향했다.

퇴근 무렵, 평소 자주 이용하던 경매사이트인 e셀피아(www.esellpia.com)를 우연히 들른 서씨는 2시간 깜짝 경매에 핸드프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시행일(30일)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핸드프리가 절실했던 차인지라 곧바로 입찰에 응해, 결국 낙찰.

다른 경매 같으면 적어도 1주일엔 걸리지만 2시간짜리 속성 경매라 시행일 전 간신히 썬값에 핸드프리를 손에 넣었다. /임성연 기자 hulpum@

30일까지 전국에 장마비  
일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장마전선이 28일 재 북상, 30일까지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장마전선이 27일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며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미치지 시작, 30일까지 전국에 장마비가 내리겠다"고 예

**3분뉴스**  
보했다. 28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40mm, 남해안 5~20mm 등이다.  
**1호터널 교통 전광판 제공**  
서울시는 28일부터 남산 1호터널 주변의 교통상황을 중구 태평로 코

리아나호텔 외벽에 설치된 옥외광고 전광판을 통해 동영상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동영상 정보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는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동안 제공되고 5분마다 20초씩 터널 주변의 교통 소통상태 및 통행 속도 등의 문자정보도 서비스 된다.

#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다 아이가' '참여연대' 3대이통회사 사이트 서버다운 시위

'마이 넷다 아이가. 이제 고만 내라라'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가 3대 이동통신회사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26일 SK텔레콤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27일 KTF(www.ktf.com)에 이어 28일에는 LG텔레콤(www.lg19.co.kr)을 대상으로 사흘간 매일 오후 1시 이동통신회사 사이트에서 1시간 동안 사이버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참여연대가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중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 운동'의 하나.

첫날 SK텔레콤(www.sktelecom.com)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시위는 지난 5월 정보통신부 사이트 시위처럼 서버가 다운되지는 않았으나 평소 1초 미만이었던 접속시간이 평균 10초 이상 지연됐으며 한때



## '안내리면 쳐들어 간다' 영화 '친구' 패러디 항의포스터 내걸기도

30초 이상 걸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F5' 또는 '재로 고침' 버튼을 계속 누르는 방법으로 서버 다운을 시도했다.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역시 한 해에 수조원씩 버는 회사 서버는 다르다"며 한마디씩 하고, 일부 학생과 직장인들은 시위 시간대가 오후 1시여서 참여하기 쉽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영화 <친구>를 패러디한 '안 내리면 쳐들어간다'는 제목의 대형 걸개 포스터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외벽에 내걸고 요금이 인하될 때까지 부착하기로 했다.

최근 요금인하 온라인 서명 운동(http://myhandphone.net) 참가자가 20만명에 이르는 등 소비자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누적 적자'와 최근 시작한 cdma 2000 1x와 3세대 IMT-2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요구하며 참여연대가 내건 대형 걸개 포스터. 영화 <친구>를 패러디했다. /한홍섭 기자 h2@

000 서비스를 위한 '신규 투자'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요금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요금을 내리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네티즌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사업자간의 공방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을지 자못 궁금하다.

/한홍섭 기자 h2@



**1:1개인문세 상담** 특별상담 : 속궁합  
궁합/명운/사명/세명  
**02-700-8400**  
전화: 060-700-8400  
팩스: 060-700-3700 / 30초당 900원 문의: 02-700-0903



나뭇가지 연필로 뭉그리시나  
'저는 자연산으로 그려요.' 인사동에서 나온 한 여학생이 나뭇가지로 만든 연필로 전통문양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김용근 기자 young@

**JP '부모 묘 이장' 100만원 과태료**  
**쿨링식** ○... 충남 예산군은 김충필 자민련 명예총재 부모 묘 이장과 관련, 이장 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들어 25일 김 명예총재 문중측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군은 이날 신앙면 사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늦게 개정신고를 한 사람은 '매장자의 손자'라고 관계를 밝힌 김모씨(55)라고 전했다. 예산군은 그러나 이 묘지 조성과정에서 나무 30여 그루 등 900여㎡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JP 부모 묘 이장사실이 공개된 이후 뿔치리인 예산군 신앙면 하천리 속청 산막골에는 풍수 전문가와 구경 삼아 온 일반인 등이 매일 100여명씩 몰려들고 있다.